



먼 길을 돌아 ‘나’를 찾아가는 빛나는 몸짓



최연소 직업무용단 안무가

김판선

무용 팬이라면 김판선이라는 흔치 않은 이름을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고교 2학년 때 춤에 빠져든 이래, 신선한 안무 감각과 에너

지가 넘치는 춤 솜씨로 한국 무용계 최고의 기대주로 떠오른 청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 현대무용 전공

자들로 구성된 LDP 무용단에서 무용가 겸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판선은 최연소 직업무용단 안무가 입

성기록을 깨며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뻑뻑 밀어버린 머리 때문인지 더 옛되어 보이는 김판선을

무용평론가 김승현이 만나보았다.

글 김승현 본지 편집위원 | 사진 박정훈

김판선을 처음 본 것은 2006년 10월 예술의전당 토월극장에서 열린 유니버설발레단의 모던 발레 무대에서였다. 그는 스페인의 나초 두아토, 이스라엘의 오하드 나하린 등 세계적 안무가들과 함께 초청됐다. ‘백구’친 머리에 균형 잡힌 다부진 몸매. 무대에 선 그에게서는 기초가 아주 단단한 도발적인 힘이 느껴졌다. 빠른 속도감과 좋은 무대분할, 명쾌한 음악 해석에 깔끔한 동작과 현실에 바탕한 추상적 아이디어도 매력적이었다. 약관을 갖 넘긴 나이에 당대의 안무가들 사이에서 주목 받지 않고 한판 승부를 벌인 기개는 얼핏 무모

하고 오만해 보일 정도였다.

직접 만난 김판선은 수줍은 소년에 가까웠다. 뭘 좀 물어보면 뒤통수에 손부터 간다.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이 눈에서 입으로, 온 얼굴로 번져간다. 좀 심하게 말하면 어리바리해 보이는 것이 순박한 백치미마저도 느껴진다. 상대하는 사람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나 풀어내는 이야기가 간단치 않다. 구체적으로 시작해 추상적으로 푹뚫 끊어내는 얘기는 앞뒤가 잘 맞고 논리적이다. 그가 만들어내는 그림이 손에 잡힐 듯하면서 빠져나가는데, 절로 구미가 당긴다. 이야기를 풀어내는

솜씨와 그의 춤은 정교한 논리로 과감하게 밀어붙인다는 점에서 똑 닮았다. 특히 무대에만 오르면 느껴지는, 이른바 ‘포스’가 범상치 않다. 사람들이 그를 안무가보다는 댄서로 더 좋아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방향이 꺼내준 근원적인 움직임

이제 스물일곱이지만, 그는 지난 10여 년 동안 꽤나 많은 장르를 거쳐 왔다. 그가 처음으로 예술을 선택하여 방향을 잡은 것은 중학교 음악 선생님 덕이었다. 그림 그리기와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고 붙임성이 있는 그에게 음악 선생님은 예술고교에 진학할 것을 권했다. 드물게 열린 성격인 부모님은 3남매 중 막내인 그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

바리톤인 그는 <그네>를 불러 전남예고에 합격했다. 그리고 1년 동안 ‘나름’ 열심히 했다. 하지만 뒤늦게 음악을 시작한 그에게 선생님들은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고등학교 1학년 말, 그는 미술로 전공을 바꿨고, 아그리파 데생을 두 달쯤 하다가 2학년 초에 다시 무용으로 전공을 바꿨다.

“기숙사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다 무용을 하고 저 혼자만 미술이었어요. 친구들이 저보고 그림보다는 무용을 더 잘 한다고 이쪽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재능이 있다기보다는 친구들이 제 ‘끼’를 잘 봐준 것 같아요. 음악도, 미술도 특별히 재능이 없어 무용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풀렸으니 ‘운’이 역세게 좋다고밖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의 삶에서 그때만큼 열심히 산 적이 없었다. 그는 처음에 발레로 시작했다. 그러나 발레는 무리였다. 어렸을 때부터 해온 친구들과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2학기 때부터 현대무용으로 옮긴 그는 1년 동안 광주의 학원, 목포의 학교, 나주의 집만을 오갔다. 집에서는 잠만 잤고, 그나마도 들르지 않는 날이 많았다. 춤은 그의 생활의 전부였다. 멀리 돌고 돌아서 드디어 자기 자리를 찾은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며 거친 여러 길은 그가 춤의 기본에 집착하고 근원적인 움직임을 꺼내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정확한 것을 배우고 싶었어요. 어차피 늦었잖아요. 기초부터 정확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학교에서 기초를 배웠고, 학원에서 더 정확한 기초를 배웠습니다. 기본에 중심을 뒀습니다. 정해진 포지션, 동작, 구성이나 순서 등 기본을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이라는 것이 하면 할수록 더 어렵네요.”

그는 ‘진짜 기본’을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중) 무용원에서 배웠다고 했다. 마사 그레이엄과 호세 리몽부터 재즈 임프로비제이션 등 기본에 대해서 충실하게 배웠다.

“좋은 가르침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예중은 정말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예중에 오게 됐는지 궁금했다. 고교 3년 2학기에 시험을 봤다고 하면 만 1년 춤을 춘 셈인데 혹시 미달합격(?)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다.

“역시 운이죠. 학원 선배들이 한예종에 많이 가서 저도 따라 시험을 봤어요. 사실 시험장에서 주눅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잘 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당시 경쟁률이 5대1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느 선생님이 잘 봐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붙은 게 신기하긴 했습니다.”

그를 잘 본 이는 아마 전미숙 교수가 아닐까 싶다. 전 교수는 상당히 무뚝뚝하다. 기자나 평론가와는 거리를 둔다. 굳이 피하지는 않지만 찾아다니지도 않는다. 함께 앉아 있어도 별로 말도 없다. 그런 그가 언젠가 김판선 이야기를 하자 단호하게 “그 애는 천재 아닐까 생각해요”라고 특유의 무뚝뚝한 어조로 짧게 말했다.

김판선은 대학생들이 “너무 좋아서 무서웠다”고 했다.

“하루 종일 무용을 할 수 있고, 처음부터 모든 걸 가르쳐주니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갑작스럽게 체계적으로 기본을 배우다 보니 학교의 ‘포스’에 제가 휘둘리는 느낌이었어요. ‘촌놈’이 서울에 와서 적응하려면 가만히 있어도 스트레스인데, 이걸 눈이 확확 돌아가게 빠르고 체계적이니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눈감으면 코 베어간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촌놈’이니 누구를 만나도 마음을 놓지 못했던 그는 무용을 하며 좋은 친구를 만났다. 무용가이자 모 자동차 CF의 주인공으로도 유명한 이용우가 그 중 하나다.

“경쟁심은 없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봐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서로가 말 안 해도 지켜봐주는 편 안한 사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용우는 확실히 저보다 가진 게 많습니 다. 툭툭 튀는 영감도 그렇고 표현에 있어서도 놀 라울 정도지요.”

그렇다. 이용우는 사실 김판선보다 가진 것이 훨씬 많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할 정도로 잘 생겼다. 몸매도 완벽하다. 그래서 드라마에 광고에 패션모델로 불려 다닌다. 춤도 박력 있게 풀어나간다. 김판선과는 분명 다르다. 그러나 이것은 무대 밖에서다. 무대에서는 다르다. 김판선이 무대에서 발하는 몸짓은 엄청난 에너지로 관객 들을 압도한다. 춤과 안무도 훌륭하지만 연출 감각이 남다르게 뛰어난 그는, ‘무대 체질’임이 확실 하다.



“나, 김판선만이 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걸 가진 게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분명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 니다.”

그는 스스로를 ‘좀 극단적이어서 가끔 다른 사람 들을 좀 당황스럽게 하기도 하고 상처도 많이 주는 스타일’이라고 했다.

“춤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발전시켜 보자고 생각 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소재를 가져와 과감하게 표현하면서도 약간의 내면화를 시켜보자는 생각이었 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발적이면서도 명상적인 김판선 류의 작품경향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첫 작품이 <리와인드>(Rewind)였다. 붉은 조명을 이용해 무대를 극단적인 1차원으로 만들고, 살아있는 오징어라는 독특한 소품으로 되돌릴 수 없는 죽음과 그 후에 오는 영의 세계를 표현했다.

졸업 작품 <새티스팩션>(Satisfaction)은 여기에 공간 감각이 강화됐다. 김판선은 이 작품에서 공간적인 실험을 더 많이 했다. 특정 공간에서 무용가가 움직일 때 관객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할지 생각하며 준비했다고 한다. 두 작품을 만드는 동안에도 그가 가장 몰두한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다. 자신의 움직임에 확신을 갖기 위해 애썼고, 왜 이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왜 춤추고 있는지 항상 생각했다.

그에게 또 다른 자극이 되었던 것은 외국의 안무가들과의 작업이었다. 2004년에 프랑스를 대표하

는 현대무용가 중의 한 명인 장 클로드 갈로타의 작품에 출연했고, 2005년에는 이스마엘 이보와 작업을 했다.

“그들은 우리처럼 완벽한 구상을 갖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니다. 편안함 속에서 일단 무용수들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마치 장기자랑을 하는 식으로 찾아냅니다. 무용수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뽑아내 자기 작품에 하나씩 구축해 나갔습니니다. 춤이 언어이며, 하나의 테크닉이 되기 위해 편안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니다.”

그리고 무용가가 아닌 안무가로서 처음으로 외부 작업을 한 것은 바로 나초 두아토와 오하드 나하린과 한 무대에서 경쟁하며 유니버설발레단원을 안무한 <컨퓨전>(Confusion).

“처음으로 전문 단원들과 한 작업인데 어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겁니니다. 제가 턱없이 모자란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니다. 특히 막바지에 힘들고 어려



움이 컸지만 오히려 더 큰 것을 배운 무대였습니다. 사람이 바로 경쟁력이라는 것도 배웠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깨달으면서 더 굳세진 것 같습니다.”

그는 특히 ‘진실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일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김판선이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7년 7월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열린 <평론가가 뽑은 제10회 젊은 무용가 초청공연 2007>에 참가하면서부터였다. 그는 여기서 <모먼트>(Moment)라는 작품으로 1등상을 수상했다. 아직 20대의 어린 안무가가 만든 작품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형식과 내용면에서 뛰어나, 외국 작품을 카피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였다.

경쾌하고도 유유자적한 춤사위로 종교적 엄숙함과 인간적 고뇌를 잘 배치했다는 평을 받은 <모먼트>는 일단 무대부터 돋보였다. 허공에서 아래로 늘어진 자루 끝에 달린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끝에 매달린 비닐봉지는 고통과 갈등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장치, 또는 과정 같았다. 이 독특한 무대에서 천주교나 밀교 같은 엄숙한 종교의 냄새가 났다. 신을 상징하는 듯한 권위 있는 사제 뒤로, 촛불을 든 채 재주를 피우며 따라가는 구부정한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얼핏 <노트르담의 꼽추>가 떠오르기도 했다. 성스럽지만 속에서는 본능적 욕망이 끓고 있는 위선적인 프롤로와, 겉모습은 기괴하지만 내면은 순수하기 이를 데 없는 과지모도의 느

낌. 이 위선적인 군림과 제의적인 고행은 전체 배경과 어울려 좋은 그림을 만들었다. 무용가들은 속도감이 있는 다이내믹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깔끔하면서도 많은 훈련이 필요한 고난이도 테크닉도 작품 완성에 크게 기여했다.

힘 있고 독특한 그의 무대는 같은 해 11월 아르코 예술극장에서 열린 <2007 바놀레 국제안무 서울 페스티벌>로 이어졌다. 소재부터 착상, 구성, 표현, 전개에 이르기까지 모자람 없는 작품 <크래쉬>(Crash)는 그에게 쏟아지는 각광의 이유를 설명하기에 충분했다.

들고 나오는 작품마다 각광을 받는 데에는, 안무와 창작에 임하기에 앞서 완전한 구상을 머릿속에 그려넣는 작품에 대한 그의 태도가 한몫하는 것일지 모른다. 그는 <모먼트>를 완성하기 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절대적인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이끌려가는 몽롱하고 묘한 이미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한 캐릭터가 모든 것을 무마시키고 빠져나오는 그런 이미지. 무브먼트는 타이밍입니다. 음악적인 타이밍과 움직임의 타이밍, 사람과 사람들이 대면하는 타이밍. 그것을 움직임으로 표현하면서 적절한 타협을 통해 조합해나갈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는 완전한 구상을 갖고 작품에 임하는 젊은 무용가를 모처럼 만났다는 사실에 뿌듯했으며, 공연 후에는 구상대로 작품을 완성한 젊은 무용가 또한 모처럼이라는 사실에 뿌듯했다.



그해 겨울과 2008년 초, 김판선은 육체미를 제대로 뽐냈다. 2007년 패션 전문지 <보그> 한국판 10월호에는 국립발레단의 김주원과 연인인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 이정운이 함께 찍은 과감한 사진이 실려 화제가 된 일이 있었는데, 이 사진의 작가 김용호는 당시 김주원 외에 많은 젊은 무용가들을 함께 찍어 사진집으로 묶었다. 그 중 하나로 사진집에 실린 김판선은 마치 살아있는 그리스 조각 같은 몸매를 뽐냈고, 이 사진은 그가 속한 LDP무용단의 작품 <사운드 익스프레스>(Sound Express, 안무 미나유)의 포스터가 되었다.

2008년 3월 8일 토월극장에서 올린 <사운드 익스프레스>에서 김판선은 처음 5분 여 동안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친 채 전라의 몸으로 멋진 춤을 춰 남녀 관객의 환호를 한몸에 받았다.

그 공연을 회상하며 ‘남자 관객들에게 콤플렉스를 느끼게 하는 멋진 몸매를 잘 봤다’고 하자, 김판선은 머리를 긁적이며 “사진은 좀 맘에 들지 않는다”고 쑥스러워했다. 좀더 설명을 듣고 이해해서 촬영을 했으면 더 자연스럽고 살아있는 작품을 만들었을 텐데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해 썩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라로 춤을 췄다는 것에 대해서는 “벗기까지가 힘들었지, 실제 무대에서 벗어나 편했다”고 솔회했다.

“‘나’니까 이런 역할을 췄고, ‘나’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런 제재 없이 무대에서 벗었다는 것만으로도 희열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불편한 것이 있었다면, 좀 추웠습니다. (진짜 썰렁한 답이다) 정말 움

츠러들 정도로 뻥한 느낌이었는데,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더니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다 같이 벗고 했으면 좀더 편하고 즐겁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06년 에로스를 주제로 한 해외축제에서 그를 비롯한 출연자 전원이 전라로 춤을 춘 적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이제 당분간 그만 벗을래요”라고 웃으며 말했다.

무용가로서의 자신과 마주하기 위하여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지만 1998년 처음으로 춤을 시작한 그가 10년 만에 이렇게 성장할 줄 아무도 몰랐다. 전미숙 교수가 ‘천재’라고 부른 것이 과찬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지금 그의 고민은 관객과의 소통이다.

“뭔가에 대해 확실하게 표현, 관객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내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관객들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줄 것인지 더 계산해야만 합니다. 내 고집만 부리면 다른 사람들로 부터 손가락질 받겠지요. 하지만 남에게만 맞추며 자존심을 버리기도 싫습니다. 내 것을 표현하면서 관객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김판선의 목표는 아직 안무가가 아닌 무용가다. 기본을 중시하는 그답게, 그가 꼽는 무용 작품의 기본은 무용가였다. 그는 무용가로서 더 많은 안무가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관객과 무용수, 안무가가 공유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에 따라 작은 차이가 있



을 뿐이지요. 하지만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용수라고 생각합니다. 무용수가 없으면 안무가도 관객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안무가라도 좋은 무용수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무용수로서 가장 1차원적인 것을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 무용수로서의 자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누가 나를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저는 제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더 훌륭한 안무가를 만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안무가보다는 무용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만나기 위한 또 하나의 선택일까. 그는 오는 12월 유럽으로 떠날 예정이다.

“되든 안 되든 일단 가려고 합니다. 컴퍼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안무가와 함께 작

업하고 싶습니다. 현재 목표로 삼고 있는 안무가는 벨기에 세드라베(C. de la B.)무용단의 시디 라르비입니다. 짧게 해서는 되는 것이 없잖아요. 길게 보고 서두르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 언어능력도 자신감도 다 없습니다. 돈도 많지 않습니다. 있다면 맨땅에 헤딩하겠다는 깡다구뿐입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갈 수는 없어요. 가서 맞추고 찾아야지요.”

인터뷰를 마치고 김판선은 씩 하고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을 보이며 일어서 씩씩하게 문을 나섰다. 그의 널찍한 등판이 믿음직했다.

글쓴이 **김승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불어교육과와 동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프랑스 파리 III 소르본 누벨 대학에서 국제문화정책과 예술행정 에 관한 고급전문학위를 받았다. 현재 <문화일보>의 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이야기가 있는 미술관>과 <축제 만들기>가 있다.